

#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게



차 두 홍  
한일그룹 회장

“집안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정승을 사모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신미년 새아침을 맞아 생각하건대 바로 이 말이 우리 양계인들의 위상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축산이 본격적으로 발전해 온 과거 30여년을 회고해 볼 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어진 아내와 같이 묵묵히 그 고초를 감내해 온 것이 우리 양계인인요, 그 어려움을 어진 정승의 슬기와 지혜처럼 극복하여 반석 위에 올려 놓은 것도 우리 양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양계인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정신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업이 존립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곧 타결될 우루과이라운드가 비록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해일처럼 덮쳐온다 해도, 페르시아만 사태가 헤어날 수 없는 깊고 넓은 수렁처럼 변한다 하여도 우리 양계인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훌륭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철저한 원가절감 운동과 사양관리의 선진화 및 위생관리의 만전 등을 통한 생산성 배가으로써, 가격경쟁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과감한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책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양계인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지속적 홍보 활동을 통한 신수요 창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양계업이 우리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호, 불황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황과 호황은 한 뿌리에 있습니다. 호황이 불황을 밟고 일어선 것이거나 불황이 무분별한 호황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호황과 불황을 함께 겪으면서 업계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라 우리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이 훌륭한 나무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모쪼록 신미년 새해를 맞아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은 가슴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아려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